

발레·판소리·스트리트댄스...광주 도심 예술로 물들다

ACC 상상마당·전일빌딩245 등 주말 공연·체험행사
시립예술단 발레·창극·교향악단 무대·전시회 등 풍성

예향의 도시인 광주가 6월 한달 문화예술 공연으로 가득차고 있다.
스트리트댄스부터 발레, 판소리에서 퓨전락(록을 기반으로 재즈, 클래식, 전통음악, 일렉트로닉 등 장르들을 융합한 음악)까지 광주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나들이 가기 좋은 6월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된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지역 곳곳을 찾아 문화공연을 펼치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물하는 '당신 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예술단이 발레, 클래식, 국악 등 폭넓게 있는 공연을 직접 시민 곁으로 찾아가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감성을 끌어올린다.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상마당에서는 K-POP, 트로트, 팝송 등을 아카펠라로 듣는 한국아카펠라협회의 '아카펠라로 전하는 설렘, 당신곁에' 공연이 열린다.

색소폰 연주와 합창으로 초여름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JS엔터테인먼트의 '자연의 하모니' 무대가 푸른길 공원에서 펼쳐진다. 쌍암공원에서는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 I -코렐리아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28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 II-파우스트' 등 갈라무대가 진행되고, 양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비보이팀 '갬블러크루'의 '해설이 있는 스트리트댄스-카페 디엠티'이 열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25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광주시립창극단이 '판소리 감성'을 연다.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를 통해 애잔하면서도 웅장한 판소리가 진행된다.

광주시향은 27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콘트라스트)'를 개최한다. 베토벤과 20세기 후반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을 대비해 긴장과 조화가 어우러진 음악을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소극장에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42회 정기연주회 'Noche de Maestra-젊은 마에스트라의 초대' 공연도 열린다.

8세 지휘자부터 청년 국악 전공자들까지 국악을 전공한 젊은 지휘자들의 다양한 국악관현악곡, 관현합주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립극단은 29일 ACC 예술극장2에서 출장연극시리즈Ⅱ '리보와 앤'을 펼친다. 감정을 배우는 인공지능(AI) '리보'를 통해 소통과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2025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와 '남도 한국화 명작전'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매주 토요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시청 야외광장, 전일빌딩245를 찾으면 된다.

광주시는 10월(혹서기7월 둘째주~8월 제1회)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시청 야외광장에서 도심 소풍을 즐기며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아트피크닉'을 운영한다. 6월 한달동안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열린다.

올해 주제는 '타임슬립'으로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테마존으로 꾸며졌다. 과거존에서는 전통탈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현재존에서는 콜라보레이션 벽화, 스프레이 그래피티 등을, 미래존에서는 디지털 드로잉, AR 컬러링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전일빌딩245에서는 매주 토요일 시민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인 '공간'을 진행한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들을 걸으며 진행되는 '인문투어', 전일빌딩245 입주기관과 연계한 인문 강연 '전일245 클래스', 청년공감 프로젝트 '왓츠인마이북',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토요일 밤을 밝혀주는 광주의 대표 야간 명소인 대인야시장도 다시 돌아왔다.

'만원의 행복'을 주제로 가넷비 야시장 이벤트부터 주자별 드레스 코드 이벤트(빨강·초록·보라·파랑 의상)까지 즐거운 이벤트와 푸드 마치를 통한 먹거리 판매와 셀러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광주FC 홈경기장이 열리는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게이트 앞에서 특별 문화이벤트인 '스포츠 문화마살'도 열린다.

경기 관람객들이 축구도 보고 재즈·팝 밴드 공연부터 미니축구, 가면만들기 등 키즈 프로그램까지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공연도 즐길 수 있다.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 시작한다. 22일은 오후 5시30분부터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

여름철을 맞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안전사고 대응 훈련에 나섰다.

1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장성군 함동저수지 일원에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물놀이 안전사고 등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의 수중 구조장비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실감콘텐츠큐브(GCC) MX 스튜디오에서 지난 12일 열린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시 서구갑) 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등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AI전문가들, 광주 'AI실증도시 최적지' 평가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 개최...산·학·연 협력 모델 논의 등

광주가 AI실증도시로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MX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팹리스(Fabless·AI반도체 설계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AI 팹리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서구 갑)·정진욱(남구 갑) 의원,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 등 국내외 유망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외 메이저 팹리스와 반도체 IP 벤더(공급

업체)들이 참여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단장이 좌장을 맡은 컨퍼런스에서는 국가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77종, AI반도체 검증체계 등이 갖춰진 광주지역 첨단 기반시설의 산업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모델이 논의됐다.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AI 반도체 산업협동 및 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쟁 전략을 소개하고,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성공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강현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장은 '광주 AI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미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온디바이스 AI 전주기 지원체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제

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는 AI 기술 동향, 인재 양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의에서 패널들은 "팹리스 산업은 IP, 디자인 하우스, 제조, 검증 환경까지 유기적 연계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광주는 AI 데이터센터와 실증 기반, 실제 서비스 적용 환경을 갖춘 'AI 실증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포화된 산업 구조로 작은 기업이 성장할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광주는 집중적인 지원과 실증 환경이 가능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라면서 "광주시가 협력 조정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팹리스·디자인하우스·IP 벤더들이 클러스터 내 실시간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돼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여름철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8월까지 집중신고 기간...옹벽 붕괴·포트홀·산사태 위험구역 등

광주시가 장마철을 앞두고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호우·태풍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빗물받이 막힘, 옹벽 붕괴·포트홀 등 시설 파손, 강풍 위험,

감전사고 대비 전기시설 위험 등이 있고, '산사태 관련 위험 사항 유형'으로는 비탈면 등 토사 유출, 낙석 위험, 주택가 등 주변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 있다.

'폭염 관련 위험 사항'인 그늘막·무더위 쉼터·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과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의 '물놀이 안전 관련 위험 사항'도 신고 대상이다.

광주시는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옆이나 집 앞 등 주변 빗물받이 덮개가 쓰러지거나 흙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호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리케이션의 '집중신고')이나 홈페이지('안전신고-여름철 집중신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6~8월) 동안 광주지역 안전신문고에는 1832건(호우·태풍 관련 신고가 17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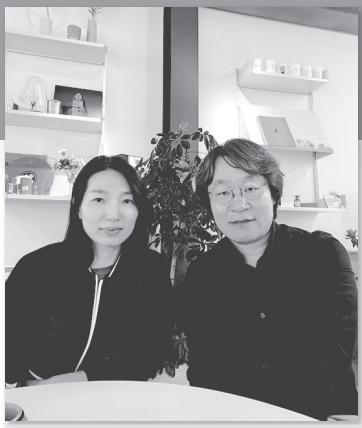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